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8.21 ~ 8.28	이름/ 윤병득
나이 34	성별/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여 ( <input type="checkbox"/> )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도심을 떠난듯한 이틀을 유쾌하게 잘 보냈습니다.

특히 스님라, 보살님라 (탱탱님?) '명상에 대해 간단히 배우고  
대체한 것이 좋았고, '명상'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박 2일을 가지고 불교라는 종교를 이해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명주라든지 연등도 만들어보며 복잡함이  
접근하기에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세상에 참회할 것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게 된 108배  
또한 조금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에 또 한번 원도록하겠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갑니다.

여지귀원

감사합니다 ~

용주사 孝 멤버스테이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Aug 28, 29, 2023	이름/	이 유선
나이	61	성별/남 ( ) 여 ( )	여 ( o )

오후! 용주사에서 신나는 일정 ^^.

비로소 명쾌하 보인다는 것을 경험했다.

뜻하지 않게 얻게 된 나를 발견한 짧은 순간들.

용주사에서 당소스님께서 알려주신, 아닌 함께한

호흡법을 통해 세상의 희노애락을 잠시 잊고,

무아지경 (흥, 종거창하지만)을 경험하여

나를 위한 시간을 맞이해보다.

어제 진행한 무위사의 심리테스트에서도

내가 무엇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 발견했고,

다음날인 오늘 명상법은 머리가 아주 맑아짐을

확실히 느꼈다.

세상의 지든 것들이 청소되어 퇴소하는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 유지하며 살아가야겠다.

갑소스님, 원장님, 팀장님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용주사 후 템플스테이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2023.8.28 ~ 8.29	이름/ 박 미경
나이 44세	성별/남 ( ) 여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p>딸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첫 템플스테이를 용주사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임시에 지쳐있는 딸과, 뒷바라지 하는 저에게                  장지나마 꿀같은 휴식 이었던 듯합니다.                  딸아이의 여린 마음이 걱정이나 단단해지길                  기도해봅니다.</p>	
<p>용주사 후 템플스테이</p>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8/28 ~ 8/29	이름/ 최정원
나이 16	성별/남 (      ) 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p>절을 하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절 하며 스님의 낭독하시는 것도 듣기 편안했습니다.</p> <p>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몸도 편안히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평상시에도 혼자 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네요.</p> <p>시간 되면 꼭 다시 오겠습니다 ♡</p>	
<p>용주사 孝 템플스테이</p>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2022. 8. 28-29 (1박 2일)	이름/ 이윤지
나이 21	성별/남 ( ) 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찾은 용주사.  
 처음엔 낯설었지만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장소와도, 불교와도  
 점점 친해져 수 있었다.  
 예불법부터 명상, 관공법, 마음심리치유까지 여유롭게만 अच्छ게 구성된  
 프로그램 덕분에 평안하리라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  
 108배도 처음 해봤는데, 수행하면서 하니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정신이 많아지는 듯해 좋았다.  
 유채산 숲이나 선경의 자연은 잊어만 하면 힐링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자취 때, 고민이 많아 속앓이할 때 이곳을 찾아  
 평안을 얻고가는 사람이 많았으면 한다.

용주사 孝 템플스테이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2023. 8. 29	이름/ 김 계 희
나이 65	성별/남 ( ) 여( 0 )

우중이지만, 템플스테이를 꼭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색이지만 고즈넉하니 좋았고  
 운영과별로 친절하셔서 넘 감사했습니다.  
 특히 명상수업이 알차게 진행하셔서  
 배운대로 실천하려 합니다.  
 다음스런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같은 기회를 가질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용주사 孝 템플스테이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2023. 8. 29	이름/ 서 연 석
나이 59	성별/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여 ( <input type="checkbox"/> )

2023. 8. 28 ~ 29 까지 1박 2일  
 동안 화성 용주사의 템플스테이는  
 새로운 경험을 주었다.  
 아침 예불, 명상, 108배를  
 통해서 불교의 의식과 예를 경험  
 하고, 특히 108배 하는 동안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사하게 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편안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가게 되어 고맙다.

**용주사 孝 템플스테이**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2023 8.28 ~ 29	이름/ 이 연하
나이 65	성별/남 ( ) 여 ( )

좋은 체험하고 갑니다.

관람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고 자상한 안내에 감사드리고

탐슨 스님의 호법명상 강의와 실습은 처음 접하는

진기한 체험의 기회였습니다.

오래 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사 孝 템플스테이**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2023 8/28	이름/ 김건우
나이 20	성별/남 ( O ) 여( )
<p>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신랄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 바쁘고, 시간에 쫓기던 생활 속에서          벗어나, 'I' 온전히 '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한 내 모습을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또 10분배를 통해서 머리를 비울 수 있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여유를 갖게 되었고, 평소 의식하지          않았던 포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p>	
<p>용주사孝 멤버스테이</p>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2023. 8. 28	이름/ 양 성
나이 62	성별/남 ( 0 ) 여 ( )

기독교인이지만 심신치유할 마음으로  
 2 층만 꼭 타고 싶었던 웰크론스케이프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인리넷 댁색으로 문구사를 갖아서  
 집에서 멀리 앉아 편한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처음으로 트릭 푸니 플랫폼에 대해  
 의미가 되었고  
 남들 인생 마음 속으로 어른스런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기회를 여러 마련하여  
 웰크론스케이프 체험을 하고 싶다.

**용주사 효 템플스테이**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8. 27	이름/ 이혜림
나이 38	성별/남 ( ) 여( O )

그동안 한번은 꼭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와보니 생각한 것 보다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 전체적인 풍경과 인자하신 스님의  
 몇마디가 , 그리고 108배의 의미를  
 들으며 수양한 것이 큰 평온을 주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분들이 왜 절에 오시는지  
 알게된 계기였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의껏 안내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주사 孝 템플스테이**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2023. 8. 26	이름/ 연 수 현
나이 57	성별/남 ( ) 여 ( )

딸의 아픔으로 마음을 다스리는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1박 2일은 보내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제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의 안정도 많이 찾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해본 108배  
 정말 바랄이 이런 기회는 아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추천해 드린 스텝님.  
 감사 합니다.

용주사 孝 템플스테이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2023. 08. 26	이름/ 객기광
나이 32살	성별/남 ( L ) 여( )
<p>태어나서 처음 경험 해본 템플스테이가 유익하여          다행입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풍경으로          10여 일동안 저희 사랑하는 가족 마음속엔 잔          하고 힐링 하고 돌아갑니다.</p> <p>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p>	
<p>용주사 孝 템플스테이</p>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2023년 8월 26일	이름/ 동건명
나이/ 14세	성별/ 남 ( <input checked="" type="radio"/> ) 여 ( <input type="radio"/> )
<p>나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되었고, 모든 활동이 재밌었다.</p> <p>108배를 하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나의</p> <p>심리상태도 보다 처음하는 <del>원</del> 템플 트레이가 좋게 느껴졌다</p>	
<p>용주사 孝 템플스테이</p>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8.26 ~ 8.27	이름/	곽지영
나이	89년생	성별/남 ( ) 여 ( )	

암암사 이력, 부활을 믿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년 및  
 휴직을 맞이하면서 강독과 방문하였다.  
 역사적 가치도 좋아해서 장로대상이 직접 만나  
 정례회로 갔을 때 강독했고 강독과 함께 하는  
 사노) 추억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틀 제정승은 힘겹게 사노이 되었습니다.  
 단두대위, 제막제복, 타공 제복. 그림제복도  
 두들려서 강독해서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기념회 맞이 준비한 느낌의 많은 직원들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용주사 孝 뎡플스테이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8/26	이름/이준우
나이 4세	성별/남 ( <input checked="" type="radio"/> ) 여( <input type="radio"/> )
<p>             스마와 함께 복습을 할 때              나와 잘맞아서 신기했다.              그리고 그집사 결과를 통해              내가 리소해야 할 것을 알아서              내가 알아가면서 책을 읽을              더 잘 <del>읽을</del> 습관을 얻을 거 같았다.              숙제도 좋았고,              왕자사를 들리고,              동주사에 있는 '범종'을 물려본              경험은 아주 좋은 경험을 해서              좋았다.              밥도 맛있었다.              새벽 3시30분에 일어나 108배를              해야하는 데 못해서 아쉬웠다.              무엇보다 7시30분에 일어나              동행복들과 가이드님에게도              화창한 마음이 있었다.              결국 4교 108배를 했지만              5시30분 밖에 못했다.              다음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다.              다음에 가면 108배를 할거다           </p> <p>☆☆☆☆☆</p>	
<p>용주사 孝 템플스테이</p>	



## 참가자 후기

참가날짜/ 23.8.27	이름/ 손 병인
나이 42세	성별/남 ( <input checked="" type="radio"/> ) 여( <input type="radio"/> )

용주사 사찰 체험 1박 2일을 경험하면서  
 마음안에 주체하기 힘든 너저분함을 정리하고  
 다른 깨끗한 심물을 채웠다고 상상하며  
 일차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자신이 돌아쳐 볼 시간이 필요하다면  
 찾아오겠습니다.

용주사 孝 뎡플스테이